

社說

남해안 시대 마중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 예산이 486억원 반영돼 내년 착공한다. 그동안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은 직결 노선이 없어 광양시로 우회해 차량으로 70분이 소요됐지만, 향후 10분 이내로 줄어 출퇴근, 업무,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특히 남·서해안 해상 교통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부산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파주시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거점이 마련됐다.

국내에는 국내 최초의 통영해저터널과 가덕해저터널, 보령해저터널이 있으며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정치권에서도 동·서 화합과 상생 차원에서 중요 과제로 인식,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모아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해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바다로 단절된 두 지역을 연계하는 해저터널은 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통합과 인적·물적 교류 촉진의 효과가 막대하다. 실제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1년 만에 이용한 차량이 모두 260만대에 이른다.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한 뒤 원산안면대교를 건너면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원산도는 물러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특수를 누렸고, 보령시 누적 관광객 2천만명 돌파에 기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해저터널 건설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에서도 남해안에 대한 관광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쩍 강조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전남은 관광, 광역교통, 우주비전, 인적 교류 등 양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전남과 힘을 합쳐 추진하면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상상발전을 강력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오랜 세월 역사와 생활상을 공유해온 이웃이다. 공동번영을 약속한 자매결연도시다. 협력의 상징인 해저터널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해안남동권 시대를 선도하길 기대한다.

광주·전남 건축 재정속 거둔 국비활동 성과

건축 재정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숙원 사업은 물론 공들여온 인공지능(AI) 산업,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광주는 3조3천81억원, 전남은 8조6천525억원이 반영됐다. 여야 정치권, 중앙부처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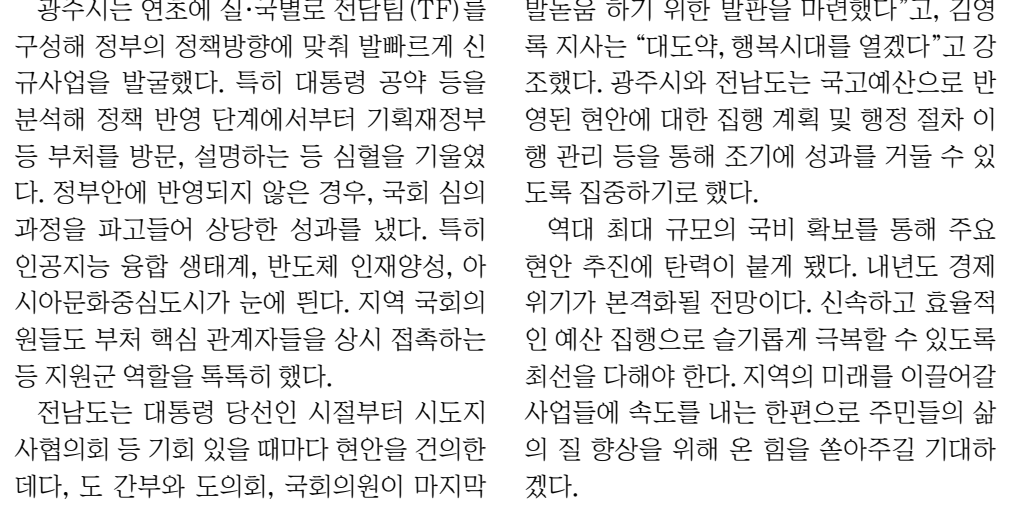
광주시는 연초에 실·국별로 전담팀(TF)를 구성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빠르게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 등을 분석해 정책 반영 단계에서부터 기획재정부 등 부처를 방문,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국회 심의 과정을 파고들어 상당한 성과를 냈다. 특히 인공지능 융합 생태계, 반도체 인재양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눈에 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부처 핵심 관계자들을 상시 접촉하는 등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남도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을 건의한 데다, 도 간부와 도의회, 국회의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여 도민의 걱정을 해소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총사업비 4조7천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천488억원을 반영, 성장 기반을 다졌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표적으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캠퍼스 조성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감격적 지사는 “대도약,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에 대한 집행 계획 및 행정 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통해 주요 현안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내년도 경제 위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들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아주길 기대하겠다.



그래픽 뉴스

배달업 종사자, 코로나 거치며 2배 증가...순소득 286만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배달업 종사자가 3년 새 2배로 증가해 11만명 대에서 23만명대가 됐다. 이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286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도교통부는 27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배달업)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9천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천188명으로 3년 사이 11만7천562명(101%) 늘었다.

배달업체로는 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이 37개, 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이 51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7천794곳이다.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 25.3일 일하며 평균 381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만원은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해 순소득은 286만원이었다. 서울 배달 종사자의 순소득이 3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06만원), 광주(274만원), 대전(267만원), 부산(227만원), 대구(220만원) 순이었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주중 37.4건, 주말 42.3건, 평균 운행 거리는 주중 103km, 주말 117km였다. /연합뉴스

광주문인협회 새 회장에 거는 기대

시론



박준수 시인·경영학박사

행 ▲연회비 65세 이상 반액·75세 이상 면제 ▲광주문학지 격월간 발행 ▲광주문학사 발간 ▲부설 평생교육기관 개설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재정확충 방안으로 광주문학지 구독 및 광고 수입 확대, 지정기부금 단체등록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선 직후 소감에서 “뿌리 깊은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켜 ‘평화로운 문단’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으며, 문협 운영에 있어서도 함께 경쟁했던 두 후보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봉사하는 자세로 재미있고 찾고 싶은 광주문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문협이 직면한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회원 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협이 단순한 친목단체나 동호인단체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광주문학의 적통을 잇기 위해서는 전문 문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창작 후보기를 돕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리고 우수한 문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문협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아카데미 개설 등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회원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술 장르 가운데 문학은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영역이어서 문인 타이틀보다는 얼마나 좋은 작품을 쓰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지금 광주문학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하다. 후자는 수많은 시인과 시집출판 발행 숫자를 가지고 “광주는 시인들로 가득찬 도시”라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문학은 양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시대 정신과 휴머니티를 얼마나 언어에 솔로 잘 직조해내느냐가 판단기준이다.

또한 현재 광주에는 광주시 예산 지원으로 여러 개의 문학상이 제정돼 있으나 심사와 선정과정이 문학단체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주문학의 대표성을 지닌 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끌었던 ‘박길무 문학상’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1회 시상식을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부 형식으로 제정된 이 상은 광주문협 회원들에게 창작 열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순수하게 작품 수준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박길무 시인은 이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광주는 예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장자라 할 수 있는 문학의 기반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면서 “광주에는 몇몇 문학상이 있지만 단체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수여하는 문학상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역량 있는 작가들이 배제되는 것을 평소 애로해 생각해왔다”고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기부자의 문학사랑 정신을 존중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존속 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60~70대가 회원의 주류를 이루는 고령화 현상을 탈피,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문단을 만들기 위해 젊고 패기있는 청장년 문학인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건립중인 광주문학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협 차원의 활발한 토론과 연구·조사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

‘문학의 고장 광주’ 명성 되찾길

이런 가운데 주목을 끌었던 ‘박길무 문학상’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1회 시상식을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부 형식으로 제정된 이 상은 광주문협 회원들에게 창작 열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순수하게 작품 수준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박길무 시인은 이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광주는 예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장자라 할 수 있는 문학의 기반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면서 “광주에는 몇몇 문학상이 있지만 단체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수여하는 문학상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역량 있는 작가들이 배제되는 것을 평소 애로해 생각해왔다”고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기부자의 문학사랑 정신을 존중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존속 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끌었던 ‘박길무 문학상’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1회 시상식을 끝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부 형식으로 제정된 이 상은 광주문협 회원들에게 창작 열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순수하게 작품 수준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박길무 시인은 이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광주는 예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장자라 할 수 있는 문학의 기반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면서 “광주에는 몇몇 문학상이 있지만 단체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수여하는 문학상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역량 있는 작가들이 배제되는 것을 평소 애로해 생각해왔다”고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기부자의 문학사랑 정신을 존중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존속 될 수 있도록 새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현안 제언



김광욱 지역정보조사센터장

약이나 독이나, 데이터해석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데 미미한 격차라니 어디동절할 만한 내용이다.

우선 문화기반시설의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행정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에 시청이 1개 있으면 광주시에 시청이 1개 있어야 하는 것이 행정시설의 특성이다. 인구 1천만인 도시도, 150만인 도시도 광역자치단체라면 동일하게 한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은 다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에 424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있는 데 광주에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논센스다. 2021년 기준 광주 문화기반시설이 66개인데 400개로 늘린다면 운영관리 예산은 광주시에 상당할 것인데 운영이 어려운 수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광주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수를 고려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예회관을 예로 들어보자. 광주의 7개를 서울과 같은 25개를 만든다면, 건물만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문예회관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공원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광주시향을 비롯한 상주단체들은 3배 이상의 공원을 해야 하거나 현재 상주단체

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각각 2개 이상 장단해야 현행 공연장 가동률을 맞출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획 공연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 역시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수치이고 다른 지역 공연단과 프로그램을 섭외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질 좋은 문화예술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문화기반시설수의 양적 지표가 아니다. 그래서 문화기반시설수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때 ‘인구 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로 비교한다. 앞서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도 이를 근거로 ‘양적 격차는 미미’하다고 한 것이다. 문예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을 보면 2021년 기준 광주시의 인구 백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4.58개로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한 1. 위는 세종시로 56.5개인데, 도시 특성을 생각하면 광주시가 세종시를 뛰어넘어야 할 당위성은 찾기 어렵다.

언제 이 2014년도에 비해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이 2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46% 증가한 부산, 34% 증가한 인천, 31% 증

가한 대구 등과 비교를 하기도 한다. 이 역시 의미는 없다. 인구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로 보면 부산(33.7개), 대구(35.2개), 인천(37.3개) 등이 광주(45.8개)보다 여전히 낫다. 우리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이라면 광주보다 이들 도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국 최저’를 언급하는 것은 논의하는 시간조차 아깝고 그 자체가 소모적이다. 논쟁이야 차치하더라도 진정 우려되는 점은 다음이다. 이러한 주장을 접하는 광주시민들이 지역이미지를 스스로 ‘낙후’와 ‘소외’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객관적 분석을 통해 낙후되고 소외된 결과로 나왔다면 쓰디쓴 말이 받아들여지고 분별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과 거리가 있는 무의미한 수치로만 우리 지역이 뒤쳐져 있다거나, 관용어구처럼 ‘낙후’와 ‘소외’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스스로 폄하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데이터는 산출된 결과물이다. 약으로 사용하지, 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리 우리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조선의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가 나아갈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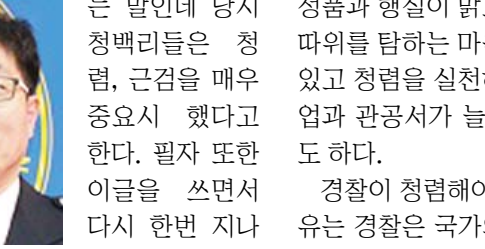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선 청백리의 대표적인 표상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98호로 등록된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아 백비라고 불린다. 비석에 어떠한 글씨조차 새겨져 있지 않아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왜 비석에 아무런 글 새김이 없을까 의아한 분이 많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를 궁금히 여겨 관련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아곡 박수량 선생은 황희, 맹사성과 함께 조선시

대 3대 청백리로 손꼽히는데 무려 39년 동안 관직에 봉직하면서 지금의 장관격인 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었지만 관직이 높았음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사후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으니 조정에서 장례비용을 마련해주어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청렴한 생활을 하였던 인물이었다.

이에 당시 명종 임금에 박수량 선생의 묘비에 공적을 세우는 것은 청백리 정신에 누가 될수 있다며 비문을 못쓰게 하고 맑은 덕을 기리기 위해 백비를 하사하게 되면서부터 그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고로 청백리란 조선시대에 선비사상과 더불어 생겨난 청렴한 공직자를 일컫



는 말인데 당시 청백리들은 청렴, 근검을 매우 중요시 했다고 한다. 필자 또한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지나온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굳이 과거를 논하지 않더라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에게 청렴정신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고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한다.

청렴(淸廉)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가 되어 있고 청렴을 실천하고자 외치는 기업과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찰이 청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은 국가의 녹(祿)을 받는 국민과 밀접한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제복입은 시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청렴한 조직문화는 존경과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곡 박수량 선생의 정신을 기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으로 또 다른 백비를 만들기 위한 청렴을 다짐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힘찬 발걸음에 격려를 부탁드린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지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 설 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